

#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1 회 추계대회보고

제 71 회 추계대회 실행위원장 와타나베 유이치(무사시노대학교)

2023년도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1회 추계대회는, 10월 14, 15일 이틀에 걸쳐 ‘세계의 행복을 구현화하는 사회복지학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오전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내려 참가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이후 오랜만에 완전 대면 형식으로 추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거듭 인사 말씀을 해 주신 쿠가 히로토 회장님, 이토 카요코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회 운영위원회, 대회 헬프데스크(국제문헌사) 여러분, 구두발표 분과회 전체 총괄자, 사회자를 흔쾌히 맡아주신 선생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차질없이 대회를 운영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는 중국과 한국과의 학술교류 간사를 맡게 된 해이기도 하여,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개회식 및 정보교류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멀리서 참석해주신 내빈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개최교 기획 심포지엄 ‘SDGs 의 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검증과 사회복지학의 도전’에서는, 사이토 코헤이 선생님 (토쿄대학교 준교수)께서 ‘SDGs의 비판적 검토와 인권문제의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해주셨고, 심포지스트로서 후지타 타카노리 선생님 (NPO법인 핫토 플러스 이사, 세이가쿠인대학교 특임준교수 등), 코지마 아키코 선생님 (오사카공립대학교 교수), 미나미노 나츠코 선생님 (토요대학교 교수), Vince Okada 선생님 (Hawaii Pacific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보고순), 그리고 코멘테이터로는 사이토 코헤이 교수님이 등단해 주셨으며, 코디네이터는 본교의 키노시타 다이세 씨가 맡아 주셨습니다.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었지만, 내용 정리를 포함해 흥미로운 심포지엄이 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기조강연을 해주신 사이토 코헤이 선생님을 비롯해 어려운 주제에 함께 도전하기 위해 등단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개최교의 기획 심포지엄 이외에 첫날(14 일)에는 연구지원위원회의 스타트업 심포지엄 ‘초기 경력 연구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원 방안’, 유학생과의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 ‘사회복지연구 · 교육에서의 다문화 공생 (2) : 한국 · 중국 유학생, 소수민족, 문화적 마이너리티 등 다양한 학생의 수용 및 대응의 현황과 과제’, 둘째 날(15 일)에는 국제학술 심포지엄(학회기획 심포지엄)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학회기획 세션 ‘사회복지학의 국제공동연구를 생각하다’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실행위원회의 ‘도전’은, 초록 작성 시 COI (이해상충) 표기를 철저히 한 것을 비롯해, 사용 데이터 (PDF)의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고 스크린에 투사한 것, 스크린에 투사하는 내용이나 부착하는 포스터 내용의 사전 점검 및 인쇄를 통한 자료 배포를 금지한 것, 대회 자료 가방·종이 매체 프로그램 배포를 폐지한 것, 포스터 발표 시간을 따로 마련한 것 (구두발표, 심포지엄 등과 중복시키지 않음), 정보교류회를 개최한 것, 포스터 발표 회장이나 구두 발표 회장에서 인근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과자를 판매하고 따뜻한 차나

커피를 제공한 것 등 다방면에 이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많은 교류를 낳고, 보다 나은 연구 발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참가 신청자 수 633명, 연구 발표 수는 구두 발표 125건, 포스터 발표 37건, 특정과제 세션 2건 (발표 6건) 이 있었으며, 정보교류회는 내빈 분들을 포함해 109명이 참가 신청을 해 주셔서, 많은 참가자들의 연구 발표와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종료 후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대회 자료 가방과 종이 자료의 대폭 감소, 초록 점검 및 당일 사용할 슬라이드·포스터 데이터 사전 점검을 통한 COI 표기 및 윤리적 배려의 철저, 포스터 발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위원회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 COI 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초록을 반려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 점, 인쇄물 배포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상황 발생 및 다국어틀 사용하는 세션에서의 정보보장의 문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포스터 발표 참가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및 시간 부족 문제, 따뜻한 차와 커피 제공 시 재활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지 못한 점, 대회개최교 기획 심포지엄 및 도시락에 곁들여진 음료에 페트병 음료를 제공한 점 등 실행위원회의 준비 미흡에 관한 의문점들, 분과회가 두 개의 건물로 나뉘어 진행되어 우천시 이동이 어려웠던 점, 행사장 안내 미흡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등 반성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속가능’ (sustainable) 의 실천에 대한 본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포스터 발표가 성황을 이루고 매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한편, 발표자(사회자)와 전체총괄자만 참석한 구두 발표 분과회도 있는 등 향후 추계대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전체총괄자를 맡아 주신 분들로부터 전체총괄자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따끔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그리고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대회실행위원장인 저의 미숙함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로부터 대회실행위원회 스태프이었던 본교 대학생, 대학원생, 스태프, 교직원에게 대한 따뜻한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길을 안내한 점, 참가자들의 요청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 스태프들 간의 소통과 팀워크가 잘 수행된 점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운영을 통해 쌓은 팀워크는 향후 본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회실행위원회 스태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제71회 추계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지적 내용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대회준비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1회 추계대회에 참가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일중한 3개국 학술교류 보고

부회장 /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카네코 코이치 (토요대학교)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국제학술교류를 금년도부터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간사국을 맡아 일한중 3개국 대표자 회담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2018년도 킨죠가쿠인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래로 5년 만입니다.

대회 전날(10월13일) 17시부터 대표자 회담이 키치쥬지 엑셀 호텔 토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향후 3개국(일한중)학술교류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2024년도) 각서의 갱신 시기를 맞아 각국에서 각서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간사국인 중국에 대해 대표자 회담과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개최 준비를 의뢰하였습니다. 심포지엄 테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떠안고 있는 과제 등 3개국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본교 이사·명예회원, 중국,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친목회를 가졌습니다. 3개국 대표자 분들이 대면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 첫 날(10월14일) 10시 부터 유학생 및 유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워크숍의 취지를 이어받아 ‘사회복지연구·교육에서의 다문화 공생(2): 한국·중국 유학생, 소수민족, 문화적 마이너리티 등 다양한 학생의 수용 및 대응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長春(Changchun)공업대학교 高春蘭 씨가, 한국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임정미 씨가 발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그 후, 11시 10분부터 그룹워크·디스커션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코디네이터는 Viktor Virag 위원과 쿠로다 아야 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회 둘째 날(10월15일) 9시 30분부터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는 일본대표로 본 학회 전 회장이었던 키하라 카츠노부 씨(도시샤대학교), 한국대표로 강남대학교 김수완 씨, 중국대표로 華東師範대학교의 黃晨熹 씨, 코디네이터는 토코로 메구미 위원과 아사노 타카히로 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자연 환경의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등에 따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은 지구 규모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러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국의 대표자들이 발제해 주셨습니다. 각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과제들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부각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대회 준비작업 단계부터 등단자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려 관계자 분들께 큰 불편을 드렸으나,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 및 회원,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23 년도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학회상수상에 대해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3년도 학회상이 결정되어, 학술상(단저부문)으로 하야시 켄타로 회원이, 장려상(단저부문)으로 오오사와 아리 회원 및 텐바타 다이ске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식은, 제71회 추계대회 첫 날인 2023년10월14일(토)에 무사시노대학교 무사시노캠퍼스 셋쇼강당에서 개최식에 이어 거행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의 기쁨의 소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학술상 (단저부문) 하야시 켄타로 (게이오기쥬쿠대학교산업연구소)

수상작 : 『소득보장법제 성립사론 (成立史論)』

——영국 「생활보장시스템」의 형성과 법의 역할』  
(信山社、2022년 3월 30일 간행)

이번에 출저 『소득보장법제 성립사론』에 대해 학회학술상이라는 대단히 영예로운 상을 안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회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본서는, 영국의 14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장기간의 역사 과정에 대해 『성립사론』으로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일정 부분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분석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식이란 ‘노동’, 즉, 일을 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과 ‘사회보장’, 즉,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동사회 구성원들이 협동하여 구성원들의 생활을 지지하는 시스템과의 조합 방식이 장기적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또한 선술한 조합을 성립하게 했던 「법」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과 분석틀은 현대에 있어서의 문제의식, 즉 워킹 푸어(working poor)와 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는 가운데,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이와 같은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본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첫번째로 고생했던(시간을 들였던) 점은, 현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사연구의 문제의식과 분석틀로써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연구로서의 분석 틀이 명확해진 후에는 방대한 사료(史料)를 해독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두번째로 고생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이번 수상의 심사위원회 ‘강평’에서 ‘분석시점에 독자성이 있다’, ‘자료를 정성을 들여 취급하였고, 그로부터 도출된 평가 등은 적확

하고 정밀하다’ 라고 평가해 주신 점들은, 본서를 정리하면서 고생했던 점들은 떠올리게 하였고, 솔직하게 기뻐합니다.

한편, 같은 ‘강평’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회복지영역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 라는 점이(지적받은 것은 이 점만이 아닙니다만) 과제가 된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문제인식을 다시 되돌아보면 저의 관심은 요컨대 법제도와 사람들의 삶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제도는 특정 인간상(像), 혹은 생활상(像)을 전제로 구축되어, 일단 제도가 확립 및 안정된 후에는 법제도가 인간 혹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활방식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제도는 모든 생(生)의 사실들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의 요건 등을 통해 이른바 ‘법적 사실’ 이라는 틀안에 현실과 현실의 삶을 억지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본서의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사실의 괴리와 긴장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생기는 불이익이 사람들의 삶에 일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점은 본서에 한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회복지·사회복지 법 제도의 검토와도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학계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려상 (단저부문) 오오사와 아리 (삿포로오오타니대학교 단기대학부)

수상작 : 『야누스 코르차크의 교육실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양육의 모색』

(六花출판, 2022년 2월 1일 간행)

이번에 장려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출판에 있어서 매우 신세를 지게 된 육화(六花)출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1989년에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조약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 폴란드의 교육자이자 유대인인 야누스 코르차크가 원장을 맡았던 고아원에 있어서의 교육실천을 역사적 및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의 사상의 형성과 심화 과정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2018년 9월에 홋카이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원에 제출한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폴란드로 유학하여 바르샤바 대학교(Uniwersytet Warszawski)에서 석사논문을 집필하고, 홋카이도대학교에서 박사논문을 제출하기까지 13년간 일본과 폴란드의 코르차크 연구자,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지인, 동료 등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를 지원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야누스 코르차크는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서 다뤄져 온 인물입니다만, 유대인 차별, 전쟁 중 고아, 빈곤 가정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안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해 고민했던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역시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에서 다루고 논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코르차크의 공적이라기보다는, 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 고아구제협회라는 단체에 주목하였고, 그와 함께 실천 활동을 한 직원, 아이들의 기록에 주목하였으며, 그리고 당시 폴란드의 아동보호의 상황을 파악하여 그 맥락 하에서 코르차크의 실천을 검토했습니다. 불충분한 점 및 많은 과제를 남긴 채 용기를 내어 출판하였습니다만, 이번 수상에 있어서 교육 분야가 아닌 사회복지학회에서 높이 평가해 주신 점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한 코르차크 연구입니다만, 일본에 귀국해 홋카이도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로는 현재 일본의 아동을 둘러싼 문제와 마주하기 위해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모든 아동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에 정진하겠습니다.

### ◆ 장려상 (단저부문) 텐바타 디스크 (일반사단법인 わをん)

수상작 : 『말하지 못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生活書院、2022년 2월 25일 간행)

이번에 장려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논문의 집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디다만, 특히 은사인 타테이와 신야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도 발도 입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제가 ‘라이프 워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연구 밖에 없다!’고 결심했을 때, 대학원 문호를 열어 주신 분은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이와타테 교수님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중도장애를 가진 저에게 ‘드디어 왔구나’라고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연구에 도전할 기회를 주셨던 이와타테 교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이와타테 교수님은 이번 2023년 7월에 급작스럽게 서거하셨습니다. 장려상수상 소식을 받은 것은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관 속에 계신 교수님께 보고드릴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본서 ‘말하지 못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는 저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이 논문 집필은 저에게 ‘당사자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14세에 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 자신의 장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것이 중증신체장애인인 제 자신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연구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의 연구가 다른 누군가의 삶의 힌트가 되어 갈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 자신의 어려움, 장애에 대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중증 장애인인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바꿔말하면, 논문집필 과정은 제 자신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는 작업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인생의 고충을 떠안으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본서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일본학술진흥회의 연구성과공개촉진비, 과학연구비조성사업 신인연구 조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번 수상과 더불어 향후 연구활동에 많은 격려가 되었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 제 3 회 CS-NET 살롱 개최 보고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코야스 유미코 (일본복지대학/일본복지대학대학원)



제3회 CS-NET살롱 기획은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2023년8월10일(목)13시~15시 2시간동안, ‘연구와 일상생활의 양립과 고뇌’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의 생활, 고민, 사회인 대학원생의 경험담,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나서의 생활·경험담 등,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분은 교육·연구·일과 사생활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을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제1부에서는 입장이 다른 초기경력 연구자 3명이 화제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일본복지대학대학원 석사과정 마즈모토 타이키 씨께서 스트레이트 마스터(석사과정 교원양성과정)의 일상생활과 고민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즈모토 씨는 연구를 우선하기 위해 정사원으로 취업하지 않고 장학금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자책을 다운로드하거나, 텍스트 음성변환 어플, 강의용 동영상 등 ICT를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이동시간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금전과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남는 시간에 일정을 잡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고 저축해 둔 돈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 걱정이 끊이지 않기에, 오늘과 같은 살롱 활동을 통해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고 싶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이트 마스터라고 하면 연구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생계를 꾸리면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가 있어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홋카이도대학대학원 박사과정의 콘도 준코 씨께서 대학원생으로서의 연구와 일, 육아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콘도 씨는 석사과정까지 쉬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 근무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의 좌절을 경험한 것이 지금의 연구 테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육아 경험은 일과 연구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생활과의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아이의 성장과 함께 시간 활용법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상상 이상으로 아이 돌봄에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주는 방 배치나 정리 수납 어드바이저의 활용, 가전제품의 활용 등 생활 환경을 정돈해 나갔습니다. 남편분의 전근이 결정됐을 때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하였고 화상 통화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였습니다. 가정, 실천과 연구를 병행하는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실천을 통한 배움으로서 얻는 깨달음이 있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홋카이도대학교 교육학연구원 학술연구원의 친쇼(陳勝) 씨께서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의 연구생활이나 지금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



인으로서 일본에서 연구, 생활을 쭉 해오면서 직면했던 곤란이나 걱정거리로서 비자에 관한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고용조건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자립생활의 가능여부, 장래에 대한 불안 등 고민거리가 끊이지 않으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등 절실한 고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원공모를 봐도 자신의 연구와 모집 내용이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등 타국에서 연구자를 지망하는 유학생이 직면하는 불안과 고민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줌(zoom)의 소규모 회의실(breakout room) 그룹 별로 나누어서 자유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연구로 어려움을 겪을 때의 기분전환 방법, 시간 활용법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활용법은 많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고민으로 실천자뿐만 아니라 상근직의 경우에도 연구시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여 다음 날 아침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 각자의 시간 활용 원칙에 대해 공유하였고, 시간 활용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서 경력을 쌓아가는데 있어서 주위의 협력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용기를 얻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숙내를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등의 후기를 남겨주셔서, 이번 살롱의 시간이 참가자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회는 연구에 직결되는 테마가 아니었고 참가자는 적었습니다만, 연구를 지탱하는 근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천현장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하였습니다. 아카데미한 환경에 몸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뜻하는 대로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번 살롱 기획에 참가하여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동료 분들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점이 향후 제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S-NET살롱 기획을 통해 여러 소중한 인연이 펼쳐져 가기를 바랍니다.

## 翻訳

朴 東民 (立教大学大学院コミュニティ福祉学研究科博士課程後期課程)

孫 宜燮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 번역

박동민 (릿쿄대학대학원 커뮤니티복지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손의섭 (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